자나 깨나 천번 만번 화두에 들어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識得 w杖子하면 今日解制어니와
不識 w杖子하면 今日結制이로다.

이 주장자 진리를 알 것 같으면 금일이 해제이지만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금일이 결제로다.

어느덧 여름 석 달 안거(安居)가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하였음이라. 금일이 해제일이라 할지라도, 화두(話頭)를 타파(打破)하지 못했다면 각자가 석 달 동안 얼마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했는지, 얼마만큼 일념이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반성해야 함이로다. 모든 대중은 해제일에 상관치 말고 다시금 발심(發心)하여 오로지 생사해탈(生死解脫)의 이 일을 해결하는데 일편단심으로 정진(精進)에 정진을 거듭할지어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해야 할 것이라.

생사해탈의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위해서는 모든 것에 초연(超然)해야 함이로다. 그러니 지금껏 지어 온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장단(是非長短)은 내려놓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몸뚱이에 끄달리지 말고, 견성(見性)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渾身)의 노력을 쏟아야 함이로다.

이 견성법(見性法)은 일념(一念)이 지속되지 않으면 깨달음이란 불가능함이라.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익어져서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된다.

그때는 모든 습기(習氣)와 의식분별이 재(灰)가 되어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몇 달이 지나가는지 몇 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一念三昧)인 것이다.

이처럼 일념삼매가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지속되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본성(本性)이 드러나고 한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과 더불어 동등한 지혜를 얻게 됨이로다.

우리 선문(禪門)에서 가장 영웅적인 호걸을 갖춘 이가 누구인고! 임제 선사(臨濟 禪師)와 덕산 선사(德山 禪師)로다. 두 선사는 진리의 고준한 안목을 만천하에 드날려 천고(千古)에 빛낸, 조사(祖師)중에 조사요, 영웅 가운데 영웅이라.

임제 선사와 덕산 선사를 알고자 할진댄, 각자의 화두를 성성(惺惺)히 챙겨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와야 천불 만조사와 더불어 동참하리니, 모든 대중은 혼신의 정력으로 정진에 힘쓸지어다.

석일(昔日)에 덕산(德山) 선사께서 회상(會上)을 열어 대중을 지도하고 계실 때, 참으로 훌륭한 두 분의 눈 밝은 제자를 두었다. 한분은 암두(岩頭) 선사인데 참선하여 깨달은 바도 없이 그대로 생이지지(生而知之)요, 또 한 분은 훗날 천오백 대중을 거느리신 설봉(雪峰) 선사였다.

암두 선사는 덕산(德山)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일여(一如)하게 지내다가, 일일(一日)에 덕산 선사를 친견하기 위해 조실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실스님 방문을 열고 한 발은 방 안에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마루에 딛고 서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선사님, 제가 성인(聖人)입니까? 범부(凡夫)입니까?"

이에 덕산 선사께서 문득 할(喝)을 하시니, 암두 스님은 절을 올리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런 후 동산(洞山) 선사께서 덕산 선사와 암두 스님이 거량한 것을 전해 듣고 평(評)하시기를,"암두전활(巖頭全豁) 상좌가 아니고는 덕산의 할을 알아듣기 어렵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암두 스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동산 노인이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구나. 내가 그 당시에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렸었노라."하였습니다.

모든 대중, 어느 곳이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린 곳인고?

이 법문이야말로 도인(道人) 문중에서 법의 안목(眼目)을 가리는 골자이다. 이러한 법문은 옛 부처가 화현(化現)한 경우가 아니고는 활개를 칠 수가 없는 대문이다. 그간에 무수 도인이 출세(出世)하셔서 심오한 법문을 많이 설하셨지만, 이 법문을 능가할 만한 법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법문도 알기가 매우 어려움이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대중은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귀에 대고 은밀히 속삭인 대문을 알겠는가?
대체 무엇이라고 속삭였기에 덕산 선사께서 종전과는 판이하고 당당한 법문을 하신 것인가?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 이 공안은 백천공안(百千公案) 가운데 가장 알기가 어려운 법문인지라, 천하 선지식도 바로 보기가 어려워서 이 법문에 대해서 평을 한 이가 거의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 공안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대오견성을 했다고 인정함이로다.

그러면 금일 모든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마구답살천하인(馬駒踏殺天下人)하니
임제미시백염적(臨濟未是白拈賊)이로다.
한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그 위대한 임제 선사도 백염적이 되지 못함이로다.

본래면목 증득해, 깨침의 철학 가져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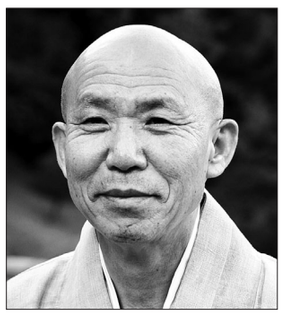
안거동안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증득하여 자기 스스로 깨침의 철학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해제가 되면 "본분사(本來事)를 무사히 해결하였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도 적공(積功)의 노력으로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사해탈의 경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윤회의 주체로서 영속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無我緣起), 〈잡아함경〉에 이것을 "업과 과보는 있지만, 업을 짓는 그 놈은 없다(有業報而無作者)."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윤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업의 요소인 만물만상의 근원을 공(空)으로 지각하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이 업을 에너지로 인지하고 있는데, 물리학자 프랑크는 우주 에너지인 극미입자(極微粒子)를 수량적으로 표시하여, 현대과학으로 불교의 공(空)을 실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안거 해제 대중은 의식과 이성에 의지하는 언어 · 과학적 사고와 언어도단과 무의식인 아뢰야식에 의지하는 불교적 사고를 모두 다 내려놓고, 실체가 없는 그 놈이 무엇인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쉼 없는 정진으로 조용히 돌이켜 살펴보기만(廻光返照) 하기를 바랍니다.

근본바탕인 청정한 마음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아서 두루 비추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고 분별하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서 그것으로 덮어 씌워 있기 때문에 밝고 오롯한 본체를 보지 못하는 도다.

해제는 결제 때 못한 공부 더 잘하기 위한 것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伽倻消息 誰能說이냐,
白雲去來 山不動이요.
莫道此時 玄妙旨하라.
說法聽法 古道通이로다.
가야산 소식을 누가 능히 말하랴.
흰구름 오고 가나 산은 동함이 없네.
이때, 현묘한 뜻을 말하지 말라.
법을 설하고 듣는데 옛길이 열리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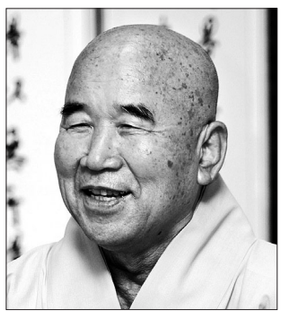
오늘이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옛스님 말씀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몸의 안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입니다. 설사 결제 중에 약간의 정진을 했다 하더라도 해제 3개월 동안에 동분서주해서 시간만 보낸다면 공부에 진취가 없을 것입니다. 해제라는 것은 결제때 못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선지식을 찾고 도반을 찾아 처소를 가려 공부를 더 잘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만, 내일도 그만, 금년도 이대로, 명년도 그대로 허송세월하면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기에 납월 30일을 당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 방초로(不行 芳草路)하면,
난지 낙화촌(難至 落花村)이로다.
꽃다운 풀밭길을 걷지 않으면,
꽃이 지는 마을에 가긴 어렵네.

진실로 버리기 어려운 욕망을 버리자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榮華終是三更夢
富貴還同九月霜
老病死生誰替得
酸甜苦辣自承當
영화종시삼경몽 이요
부귀환동구월상 이라
노병사생수체득 이리오
산첨고날자승당 하리라

세속의 영화는 마침내 한밤중의 꿈같고 부귀도 되돌아보면 구월의 서리 같네.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 누가대신 하겠는가? 시고 달고 쓰고 매운 이치는 자신만이 알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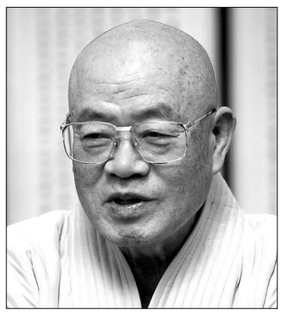
수행자의 본분을 잊고 모두가 밖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모두를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선사의 고구 정녕한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되새겨서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 철 동안 각자가 화두를 굳게 들고 자신에게 철저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질듯하고 다리가 아파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수행자는 코끼리 가죽을 덮어쓴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겉모습과 이름으로 치장을 해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행은 혁범성성(革凡成聖)이라.

범부의 마음을 고쳐서 성인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오늘 해제는 중생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바꾸어 대자대비의 문을 열고 나가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杯子撲落地여 響聲且歷歷이라
虛空粉碎也하니 狂心當下息이로다
찻잔이 땅바닥에 툭 떨어짐이여!
그 소리 참으로 통쾌하구나.
허공마저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데
날뛰던 그 마음 당장에 쉬었네.

물건마다 하나 하나 광명발하니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一卓 w杖大地沈하니 萬像森羅盡舒光이로다. 水聲淸風說無生하니 蠢動含靈皆成佛이로다.
주장자를 한번 치니 대지가 평침하고 만상삼라가 다 광명을 놓는 도다.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무생법문을 설하니 준동함령이 다 성불하도다.

원각경에 이르시되 "가없는 허공이 각의 현발한 바라."하시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한마디 일러라! 어느 것이 이 낱 허공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전의 본래 체성인고? 잠깐 있다가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고 이르시되 한 자루의 주장자가 법계에 두루 하니라. 도리어 낙처를 알겠는가? 다시 고인의 행리처를 설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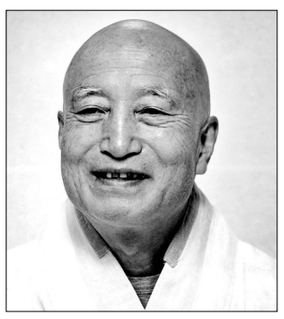
설봉화상이 대중에게 보여 이르시되 나의 이 속에 일면의 한 옛 거울이 있어서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나투고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을 나툼과 같으니라.

어떤 스님이 문득 묻되 홀연히 밝은 거울이 옴을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설봉화상이 이르시되 검고 붉은 것이 함께 숨느니라.

대각연 선사께서 게송으로 이르시되 두 거울이 마주쳐 철저히 비추니 오고감에 호한이 모두 다 숨었도다. 까닭 없이 여여한 본체를 다시 말하니 부리 꼿은 파사인이 부질없이 성급하네.

淸天夜月甚皎潔하니 寂寂廖廖徹底光이로다.
問爾卽下如何是오 物物頭頭盡惺光이로다.
맑은 하늘 밤 달이 심히 밝으니 고요하고 고요한데 끝없이 빛나도다.
묻노니 그대는 지금 어떠한고? 물건마다 하나하나 광명을 발하도다.

청정자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란 글이 있다.

人法地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한다. 즉 땅의 관용을 배우라는 뜻이다. 땅처럼 진실하고 너그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땅은 옳고 그름을 떠났다. 또한 증애도 없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작은 것, 큰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등 아무런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걸 담고 있다. 그 관용의 무한함을 배우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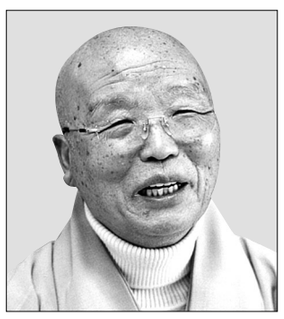
地法天 땅은 하늘을 본받아야 한다. 땅이 아무리 관용의 덕이 있다 하여도 하늘처럼 텅비어 광대무변함은 없다. 비었기 때문에 땅을 수용할 수 있고, 삼라만상과 일월성신을 수용하듯 사람도 허허로이 다 비웠을 때 진정한 自由와 참 생명의 지혜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天法道 하늘은 도를 본받아야한다. 도는 우주의 질서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요 인과의 법칙이다.

道法自然 도는 자연을 본받아야한다. 자연은 진실함이다. 꾸밈이 없다. 순수하여 말할 수 없다. 본래면목의 원형이며 선악과 미추와 시비를 떠난초월의 자리이며 진실불허한 자성 표현이다. 우리는 자성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노력을 정진이라 한다. 귀취자기다.

이런 병든 생명들에 의해 탐욕과 분노와 우치의 어두운 그림자는 끝없이 이어져간다. 귀취자기가 절실해진다.

죽림정사의 바람 생각하세요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께서 무단무장법(無短無長法)을 설하시고, 백장스님은 쉬고 쉬어라 말씀하셨고, 조주스님은 끽다거(喫茶去)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대중은 이번 폭염 속에서도 닦고 닦았으니, 오늘 닦은 바를 한마디 해보세요. 그야말로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 불꽃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신분으로 일대사 마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바를 나는 아직도 본 바가 없으며, 들은 바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듣게 하고 보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아마 부처님도 환희심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 은혜를 무엇으로 갚고자 합니까.

여러분! 폭염보다도 부처님 은혜가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오늘을 해제라 하지 말고 쉬어가겠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부처님 당시부터 27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죽림정사 대밭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 지 모두 아시겠습니까? 죽림정사의 바람을 쐴 때까지 폭염은 생각하지 말고 죽림정사 바람을 생각하세요

아무쪼록 죽림정사에서 노닐기를 바라며 오늘 해제법문은 줄이겠습니다. 그저 어둔한 말이라 법문이라고 말씀드리기기 부끄럽습니다.

제작일정 관계로 금정총림 · 고불총림 법어는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